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 (2)

- 상대경어법을 중심으로 -

徐 德 鉉 (숙명여대 강사)

목 차

1. 머 리 말
 - 1.1 본 연구의 개관
 - 1.2 본 연구의 한계점
2. 상대경어법의 기술
3. 본 연구에서 남은 문제

1. 머리말

1.1. 본 연구의 개관

필자는 줄고(1992 a)에서 과거 김인정 및 국정 문법 교과서의 경어법 기술에 대하여 문제성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대안(代案)을 제시한 바 있다.

줄고(1992 b)의 뒤를 이어 본고(本稿)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경어(법) 사용 기능의 신장을 위한 학교 문법의 경어법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래의 학교문법서가 대부분 경어법의 분류 기준을 의미에 두었고, 발화 어휘와 이해어휘의 구별이 없이 성인어(成人語)에 초점을 맞추어 경어법을 기술하였으며 형태론 위주로 그것을 기술함으로써 문(文) 이상의 경어법 호

용관계를 소홀하게 다루었다. 그 밖에도 학교문법서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¹⁾

필자는 그러한 제반 문제들을 가능한 한 풀어서 국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적으나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경어법 기술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을 절감했었다.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의 부족이나 그와 관련한 주변 학문의 도움의 한계 등으로 아직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경어법 기술이 나와야 한다.

대우 대상으로 분류된 경어법 체계는 주체경어법, 객체경어법 그리고 상대경어법 등이다. 그밖에 경어법의 특수어휘가 별도로 있다."²⁾ 본고는 그들 중에서 주체경어법(줄고, 1992 b)의 뒤를 이어 상대경어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상대경어법은 먼저 발화어휘의 경어³⁾(敬語)를 중심으로 기술된다. 그 이해 어휘의 경어는 피교육자의 경험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와 구분해서 기술될 것이다.

상대 곧 청자의 대우, 상대경어법의 화계, 상대경어법이 관여하는 서술어의 품사, 서법에 따른 상대경어법⁴⁾, 인용법에서의 상대경어법의 조정⁵⁾, 호응관계, 그리고 그밖에 상대경어법과 관련된 이해 어휘의 경어 등이 기술될 것이다.

그런데 경어법 기술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경어 선택에 관여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화자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요인은 본고에서 제외한다.⁶⁾

1) 줄고 (1992 a)의 3장 참조.

2) 상계서, pp.4-6.

3) 상계서, pp.234-237.

4) 강복수 외(1968), 이인모(1968), 이희승(1968), 허용(1968), 최헌배(1968), 이은정(1968), 강윤희(1968), 허용(1979), 이용백 외(1979) 등 참조.

5) 이용백, 상계서, pp.137-138.

6) 줄고, 전계서. p.4.

앞에서 언급했지만 경어법 기술을 위해서 사회언어학(社會言語學)의 발전이 국어학계에 있어야 할 터인데, 현재로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사회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경어법과 관련된 연구물에 제시된 사회적 요인을 아쉬운 대로 학교문법에 원용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사회적 요인을 살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연령, 친소, 격식(장소), 지위(계급), 향렬, 인격⁷⁾, 힘⁸⁾, 성별, 비품⁹⁾ 등

이들 요인 중 피교육자인 청소년 사회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서 '연령'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친소', '격식', '지위', '향렬', '성별' 등이 비교적 그들의 공통적인 인식의 집합인 사회적 요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나, 이들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고찰하여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친소(親疎)'는 청소년층에서 경어법 사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나, 그래도 그 일부가 그것을 의식하여 경어를 쓰고 있다. 이 요인은 상대 경어법과 다소 관련을 갖는다.¹¹⁾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한다.¹²⁾ 사실 이 요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가령 학급회의나 조회시간

7) 남기심(1981), p.10. 참조. 사회적 요인도 차츰 변화되어 형식적인 요인 [연령, 지위, ……]에서 보다 인간적인 (내용적인) 요인[인격]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다.

8) 양인석(1980), p.105., 조준학(1981), p.24. 참조.

9) 이 요인은 개별적인 색채가 짙기 때문에 사회적인 범주를 이루기에 미약한 것이다. 註 6)참조, 가령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김영식 씨 오늘 왜 늦으셨어요?"라고 말했다고 하자. 감정적인 '비품'에 의해 그런 발화(문)가 나온 것으로 이탈(deviation)이나 전의 (switching)로 볼 수 있다.

10) 줄고(1985) 및 김혜숙(1986) 참조.

11) 줄고, 상계서, pp.155-156.

12) 동아일보 (1992. 19. 9) 참조.

에 비교적 그 힘을 발휘할 뿐이어서 대부분 그에 어울리는 경어가 바르게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격식'과 관련된 경어법 지도가 있어야 한다.

'항렬'의 요인은 사실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의식 속에 혈족의 방계에 대한 대수(代數)의 관계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작 4촌 이내의 친족만이 대체로 그들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나 소위 압존(법)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항렬'보다 '연령'이 지배적인 세력을 가진다고 보인다.

'성별'은 청소년층에서 경어법 사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나, 동년배에게 그 영향력이 약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³⁾ 이 요인은 상대경어법과 관련이 있다.

'지위(계급)'는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엄격한 상·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요인으로서 상급생과 하급생 사이의 위계를 경어으로써 표현하는 데 작용한다.¹⁴⁾ 이 요인은 상대경어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피교육자인 청소년들이 상대경어법에 관여하는 사회적 요인은 대체로 '연령', '친소', '격식', '성별', '지위(계급)' 등에 불과하다.

'연령'은 그 낙차(落差)가 클수록 주체경어법과 마찬가지로 상대경어법에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의 산물이기에 앞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장 전통적이다. 민주화가 보편화되고 의식이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이라고 하지만, 기성세대처럼 아직은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연령'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⁵⁾

이상으로 상대경어법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들을 대강 살펴 보았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의해 선택되어 의미를 갖게 되는 상대경어법의 언어요

13) 줄고, 전계서, pp.125-126.

14) 줄고, 상계서, pp.123-124.

15) 줄고, 상계서, pp.101-102, p.155 참조. 다만 여자의 경우, 특히 서울에서 어머니에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연령'이 경어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 세요'에 대한 선택이 42.2%이고, '- 아'에 대한 선택이 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들에 대하여 기술이 가능하게 된다.

그 언어요소들은 독립어의 조사와 서술어의 용언어미이다. 후자는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로 나뉜다.

화자(話者)는 누구도 될 수가 있겠지만, 화자의 언어발달 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화자는 어느 일정한 단계의 피교육자로 한정을 해야 일관성 있는 경어(법) 교육을 위한 교재 구성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경어법 교육의 내용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본론의 기술에서 상대경어법의 언어요소에 선택되어 이용될 경어자료는 1980년대의 청소년들의 어휘이다.■ 이것을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발화(표현) 어휘

상대경어법

○ 조사

- 아 / - 야 , Ø (*높임)▯

○ 용언 어미

종결 어미: 합쇼체 해라체
 세요체 해요체 해체

※ 호응

이해 어휘

상대경어법

○조사

* - 이 (시) 여

16) 이용주(1991), p.12, 특히 실용을 위한 문법 기술의 경우, 그 시기를 한정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범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우법 체계의 변화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17) 필자는 본고에서 생략된 어형(語形)에 대해서는 “Ø”를 사용한다.

○ 용언 어미

선어말 어미: *(- 오 -), *(- 읍 -), *(- 사오 -)

종결 어미: *(하소서체), 하오체, 하게체, *(함체)

본고의 경어법 기술에서 피교육자를 청소년으로 정하였으므로 다음에는 청소년들의 대인 관계의 범위를 결정하는 대우의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상대경어법에서 대우의 대상으로서 상대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 요인과 관련지어 본문에서 제시될 것이다.

국어교육이 맡은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는 어떤 언어행식의 기능 내지 용법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피교육자가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어의 사용과 관련된 언어지식을 기술하는 것은 그것을 교수함으로써 피교육자에게 경어법을 있는 그대로 언어발달 단계에 맞게 광범위하고 충분한 경험을 하게 하고 경어 사용의 준거를 마련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기술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에 1·2에서 제시된 한계 안에서 상대경어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그런대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1.2. 본 연구의 한계점

국어교육학의 성격으로 볼 때에 인접학문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그것이 발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국어교육의 내용영역 중 언어지식에 해당하는 학교문법의 기술은 국어학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특히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은 국어학 이외에도 사회언어학의 연구성과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한국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외국 학문의 소개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체계성도 없이 부분적인 것을 다루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은 이제 문(文)을 기본 단위로 하고 담화 차원에

18) 줄고(1992 b), pp.16-17, 참조.

서 기술되어야 하나, 아직은 큰 벽에 부딪친다. 왜냐하면 언어 외적인 면에 초점을 둔 화용론이나 담화 내지 텍스트 이론 등이 역시 국어학계에 소개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국어교육과정에서 교육의 내용으로서 언어 영역을 말하기 및 쓰기와 통합하는 것이 국어교육의 목표인 언어사용기능의 신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¹⁹⁾ 그러나 언어지식인 경어법의 기술을 표현의 기능인 말하기 및 쓰기에 접목한다는 것은 국어교육학의 또 다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교재구성에서 그 원리로서 교수 방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면, 국어교육학의 연원이 일천한 지금으로서는 그런 이론이 수립되지 않은 마당에 선부르게 경어법 기술의 확대를 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²⁰⁾

이상과 같이 외적으로 주변 학문이나 내적으로 국어교육학 자체의 발전의 한계 때문에 경어법이 통사론을 중심으로 한 문(文)의 층위에서 부족하지만 사회언어학적 연구성과의 도움을 받아 기술될 수밖에 없다.

본론에서 상대경어법 기술에 쓰인 예문 중에는 기존 문법서들에서 이미

19) 졸고(1992 a), pp.240-241. 참조.

20) 이론적인 지식은 실제 연습의 과정에 제시되어 의식적인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훈련 결과의 지속성이나 전이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교수의 도구인 교재의 구성에 교수 방식이 반영이 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이론에 의한 교수 방식이 가장 교수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점이다. 사실은 그 동안 국어교육학에서 이론적인 연구가 미흡(?)하였기에 그 체계를 운위할 개체는 아니지만, 언어관에 입각하여 보면, 서양에서는 소위 이성주의(rationalism)와 경험주의(empiricism)의 두 이론이 대립을 이루면서 교육적인 방법에 원용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국어교육에서도 가령 경험주의의 방법 중 하나인 문형연습(pattern drill)이 시도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효과는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다.

최근 심리학 쪽에서 인지심리학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문적으로 성숙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어교육학에서 관심의 대상은 되지만, 그 이론을 쉽사리 원용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예시된, 기술하기에 좋은 문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 둔다.

2. 상대경어법의 기술

2.1. 경어법

우리말(한국어)에는 대우를 하는 대상에 따라 그 상황의 사회적 요인인 연령이나 지위 혹은 친소나 격식 또는 성별 등에 의해 대우에 관계된 의미를 갖는 언어 형식 곧 경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법이 있다. 이러한 용법을 경어법이라고 한다.

주어의 주격 조사, 서술어의 용언 어간이나 어미 혹은 서술격 조사에 경어를 사용하여 주체를 대우하는 것을 주체경어법이라 하고, 부사어의 부사격 조사, 서술어의 용언 어간에 경어를 사용하여 객체를 대우하는 것을 객체경어법이라 하고, 독립어의 호격 조사, 서술어의 용언 어미에 경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대우하는 것을 상대경어법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말(한국어)에는 특별히 주체경어법, 객체경어법, 상대경어법 등의 각 체계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문(文)의 호용을 이룰 수 있는 경어들이 있다.

2.2. 상대경어법

2.2.1 . 청소년으로서 말하는 사람인 우리는 대우의 대상이 상대 곧 청자(聽者)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 (나) 형(님), 이거 봐요.
- (다) 철수야, 이리 와.

말 듣는 사람으로서 1 - (가), (나)의 '선생님', '형(님)' 등을 직접 대

우하기 위하여 전자에서는 서술어의 종결 어미 '-세요'가 쓰였고, 후자에서는 '-요'가 쓰였다. 그러나 말 듣는 사람으로서 1-(다)의 '철수'에게는 독립어의 호격 조사 '-야'와 서술어의 종결 어미 '-아'가 쓰였다.

1-(가), (나)에서처럼 말 듣는 사람이 우리보다 손윗사람일 경우에 구어(口語)에서는 대체로 독립어의 호격 조사가 생략된다. 다만 상대를 대우하기 위하여 서술어의 종결 어미에 '-아/-어'(반말)나 해라체 대신에 경어가 쓰인다.

2.2.2. 말 듣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우리는 경어를 다르게 표현하여 그를 대우한다.

- 2. (가) 할아버지(님)ㄹ, 이리 오세요.
- (나) 형(님), 그리 가요.
- (다) 영희야, 노래 좀 불러라.

2-(가)의 말 듣는 사람인 '할아버지(님)'는 우리와 사이에 '연령'의 낙차(落差)가 대단히 크다. 이런 경우에 서술어에 종결 어미 '-세요'가 쓰인다. 그 부류에 드는 상대는 대체로 '선생님', '아버지(님)', '어머니(님)', '큰형님·큰오빠', '형수님·올케(언니)', '큰누나(님)·큰언니', '나이 많은 아저씨·아주머니' 등이다.ㄹ

21) '아버님', '어머님' 등이 어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표준어로 삼지 않으려는 주장이 있다. 국어심의회가 확정된 '표준화법'에 따르면 친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 등 '님'자를 붙이는 것은 틀린 어법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 92년 10월 22일 참조) 그렇다면 '할아버님', '할머님', '아주머님', '누님' 등도 그와 동체로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버지, 어머니 등이나 할아버지를 깎듯이 대우할 때에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등을 자연스럽게 언중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지나치게 어법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언어현실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표준화법을 정하는 것이 현실과 미래를 위하여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2-(나)의 말 듣는 사람인 '형(님)'은 '연령'이 2-(가)의 상대에 드는 '큰형님'보다는 많지 않고, 우리보다는 비교적 많다. 이런 경우에는 서술어에 종결 어미 '-요'가 쓰인다. 그 부류에 드는 상대는 대체로 '오빠', '누나(님)·언니', '나이가 많지 않은 아저씨·아줌마' 등이다.²²

2-(다)의 말 듣는 사람인 '영희'는 우리의 동료이거나 우리보다 나이가 적다. 이런 경우에는 2-(가), (나)에서처럼 경어가 쓰이지 않고, 독립어의 호격 조사 '-아/-야'와 서술어의 종결 어미 '-아/-어'(반말)가 쓰이거나 아랫사람에게는 '-어라'(해라체)가 쓰이기도 한다.²³

'친소(親疎)'가 경어 선택에 다소 영향을 준다.

3.²⁴(가) 아저씨·형(님), 이리 오세요.

(나) 아저씨, 이리 오세요.

(다) 누나·아줌마·아가씨, 이리 오세요.

(라) 언니, 이리 오세요.

(마) 형·아저씨, 이리 와요.

(바) 형, 이리와

(사) 오빠·아저씨, 이리 와요.

(아) 오빠, 이리 와.

22) 줄고 (1985), pp.98-112, pp.117-120, pp.122-123, 참조.

23) 상계서, pp.113-121. 참조. 이 부류에는 예외가 있다. 대우의 대상인 상대가 '나이가 많지 않은 아저씨·아줌마'로서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그들에게 서술어의 종결 어미 '-세요-'를 사용한다. 이것은 '친소(親疎)'의 사회적 요인에 의한 상대경어법에서 자세히 기술된다.

24) 상계서, pp.124-130. 참조. 예외로서 청소년들은 이성간(異性間)이면서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동년배에게 대체로 서술어의 어미에 '-세요'나 '-요'를 쓴다. 또한 특별히 여자 청소년들은 동성간(同性間)이면서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동년배에게도 '-세요'나 '-요'를 쓴다. 이것은 '성별'이나 '친소'의 사회적 요인에 의한 상대경어법에서 자세히 기술된다.

25) 서술어의 종결 어미에 오는 경어: 상계서, pp.113-117. 참조. 상대의 호칭: 줄고 (1986), pp.95-97. 참조.

(자) 누나, 이라 와요.

(차) 누나, 이리 와.

(카) 언니, 이리 와요.

(타) 언니, 이리 와.

우리와 연령 차가 크지 않고, 친(親)한 성인 남자에게는 3-(마), (바), (사), (아)에서처럼 서술어에 종결 어미 '-요'를 쓰거나 '반말'을 사용한다. 또한 우리와 연령 차가 크지 않고, 친(親)한 성인 여자에게도 3-(자), (차), (카), (타)에서처럼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우리와 연령 차가 크지 않고, 소(疎)한 곧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성인 남자에게는 3-(가), (나)에서처럼 서술어에 종결 어미 '-세요'를 쓴다. 3-(가)는 남자 청소년이, 3-(나)는 여자 청소년이 사용한다. 또한 우리와 연령 차가 크지 않고 소(疎)한 곧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성인 여자에게도 3-(다), (라)에서처럼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특별히 3-(다)의 호칭(呼稱)이 다양한데, 상대가 결혼한 여자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아줌마'가 되겠고, 젊은 여자인 경우에 초점을 두면 '아가씨'가 될 것이다.

4. ㉞(가) 철수(영희)야, 이리 와.

(나) 야(애), 이리와.

(다) 이리 오세요(와요).

우리와 친(親)한 남·녀 또래에게는 4-(가), (나)에서처럼 서술어에 종결 어미 '-야'(반말)를 쓴다. 또한 우리 가운데 남자 청소년들은 소(疎)한 곧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남자 또래에게도 대체로 그와 같이 반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와 소(疎)한 곧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이성간(異性間)의 또래에게는 대체로 4-(다)에서처럼 서술어에 종결 어미 '-세요'나 '-요'를 쓴다. 이 때에 사용되는 호칭(呼稱)은 다양하다. 성인어의 '씨'를 이름 뒤

26) 줄고(1985), pp.124-127. 참조.

에 붙인 '철수 씨', '영희 씨' 등이나 '여보세요', '이봐요' 등을 사용하거나 아예 호칭을 생략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여자 청소년들은 소(疎)한 곧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여자 또래에게도 그와 같이 대체로 '-세요'나 '-요'를 쓴다. 이때에 사용되는 호칭도 그와 같이 다양하다.

'격식(格式)'은 주체경어법에서보다 상대경어법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5. (가)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 용원아, 형 방으로 들어오너라.

5-(가)의 상대는 '선생님'이나 우리와 연령의 낙차(落差)가 아주 큰 사람이고, 5-(나)의 상대는 '동생'이나 우리보다 연령이 적은 어린이이다. 우리가 이들에게 비교적 격식을 차려 말할 때에 그 각각의 서술어에 종결어미 '-하십시오.-(으)십시오' 곧 합쇼체와 '-너라' 곧 해라체가 쓰인다. 이런 문체는 그 표현이 딱딱하고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

5의 상대에게 우리가 비교적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말할 때에는 6과 같다.

6. (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어요.

(나) 용원아, 형 방으로 와.

6-(가)에서 서술어에 '-세요' 곧 세요체, '-어요' 곧 해요체 등이 쓰였고, 6-(나)에서 '-아' 곧 반말이 쓰였다. 이런 문체는 그 표현이 부드럽고 주관적인 느낌을 준다.■

그런데 특히 공적(公的)인 장소에서는 '연령'의 사회적 요인과 관계없이 '격식'에 의해 합쇼체가 두루 쓰인다.

7. (가) 어머니(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님)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불효를

27) 통일문법 국정(1985), p.105. 참조.

28) 상계서, p.105. 참조.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 회원께서는 조용히 하십시오.

7-(가)에서처럼 TV 방송국과 같은 곳에서는 우리와 연령의 낙차(落差)가 아주 큰 상대에게 당연히 서술어에 종결 어미 ‘-(으)ㅂ니다.-ㅂ시오’와 같은 격식체가 대체로 쓰인다.

7-(나)에서처럼 학급회의를 하는 곳에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같은 급우에게도 합쇼체가 쓰인다. 또한 상대가 어린이인 경우에도 공적(公的)인 장소에서는 그런 격식체가 쓰일 수 있다.

공중(公衆)에게는 연령과 무관하게 인격적인 대우가 가능하다.■

8. (가) 이리 오세요.

(나) 이리 와요.

8-(가), (나)에서처럼 청소년 공중(公衆)에게는 서술어에 종결 어미 ‘-세요’ 곧 세요체가 쓰이고, ‘-요’ 곧 해요체도 쓰이며, 어린이 공중(公衆)에게는 해요체가 주로 쓰이고, 세요체도 쓰인다.

‘성별’은 4에서 본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동년배의 친(親)한 동성간(同性間)이나 소(疎)한 곧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이성간(異性間)에 거의 영향력이 없다.

다만 동년배의 소(疎)한 곧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동성(同性間)에 ‘성별’이 미약하나마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미 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 남자 청소년은 대체로 반말을 쓰나, 여자 청소년은 세요체나 해요체를 쓴다.

29) 줄고(1985), pp.131-134. 참조. ‘인격(人格)’의 사회적 요인이 성인들처럼 청소년들에게도 미약하나마 그들의 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은 다른 사회적 요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말 듣는 사람의 '지위(계급)'가 우리의 그것보다 높을 때에 경어를 사용하여 그를 대우한다.³⁰

9. (가) 형(언니), 저것 봐요.

(나) 형님(언니), 저것 보세요.

9. -(가), (나)의 상대가 연령이 우리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연령이 우리보다 적은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서술어에서 종결 어미 '-요' 곧 해요체가 주로 쓰이나, '-세요' 곧 세요체도 쓰인다. 그것은 상대가 우리보다 '지위(계급)'가 높기 때문이다.

2.2.3. 우리말(한국어)에는 말듣는이를 대우할 때에 그에 따라 일정한 화계(話階)가 형성됨³¹으로 그것에 맞게 말을 해야 한다.

10.³²(가)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나) 형(님), 등산반 모임이 몇시에 있어요?

(다) 야, 너 언제 학교에 가니?

10-(다)에서처럼 동년배나 연하(年下)에게 대체로 서술어에 종결 어미 '-니' 곧 해체(반말)이 쓰인다. 그러나 10-(나)에서처럼 상급생이나 우리와 연령차가 크지 않은 연상(年上)에게 대체로 서술어에 '-아(어)요' 곧 해요체(예사높임)가 쓰이고, 10-(다)에서처럼 우리와 연령차가 큰 상대에게는 '-세요' 곧 세요체(아주높임)가 쓰인다. 이런 경우에는 말듣는이가 주체와 동일인일 때에 한한다.³³

30) 상계서, PP.123-124. 참조.

31) 줄고 (1992 a), p.225. 참조.

32) 상계서, p.103의 註 72), p.116의 註 96), p.235의 註 9) 등 참조.

33) 성기철(1970), p.42. 참조.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의 말에는 세 화계(話階)가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연령’과 ‘지위(계급)’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밖에 반말과 동일한 화계(話階)로서 격식체인 해라체가 쓰이고, 세요체와 동일한 화계(話階)로서 격식체인 함쇼체가 쓰인다.

그런데 해요체는 화계상으로 세요체와 흔히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2.2.4. 상대경어법도 주체경어법과 같이 문(文)의 서술어에서 세 품사에 관여한다.

11. (가) 야, 조선시대 서민들의 신은 짚신이야.

(나) 오빠, 가는 데가 서울이에(어)요?

(다) 할머니(님), 아프신 곳이 무릎이세요?

12. (가) 영희야, 이 꽃 참 아름답지?

(나) 형(님), 영희 얼굴이 붉어요.

(다) 어저씨,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13. (가) 철수야, 이거 먹어.

(나) 누나, 저것 파요.

(다) 아버지(님), 일찍 들어오세요.

서술어의 품사가 11은 서술격 조사이고 12는 형용사이고, 13은 동사이다. 이들 품사의 어간 뒤에 종결 어미로서 해체(반말), 해요체, 세요체 등이 각각 타나났다.

그런데 해요체의 ‘-요’는 11-(나), 12-(나), 13-(나) 등처럼 반말에도 불지만, 다음과 같이 그 밖에 다른 어형(語形)에도 붙는다.”

34) 홍기문(1947), pp.370-371. ‘-요’의 분포에 대한 기술이 있음.

정인승(1956), pp.172-173, ‘-요’는 ‘높임’이외에 ‘농침’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봄.

14. (가) 너 어디 가니? 바다요.
(나) 언제 출발하니? 아침 일찍요.
(다) 누가 여기에 있을거니? 내가요.
(라) 저기 철수가 오네요.

14-(가)에는 명사에, 14-(나)에는 부사에, 14-(다)에는 조사에 그리고 14-(라)에는 하계체 등에 '-요'가 붙어 상대 곧 청자를 대우한다.

2.2.5. 상대경어법은 각 문체별로 서법(敍法) 곧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쓰인다.

평서법은 다음과 같다.

15. (가)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나) 오늘은 하늘이 맑아요.
(다) 영화가 가(아).
(라) 내가 노래하나.

(15)-(가)~(라)에는 차례로 합쇼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등이 쓰였다.

의문법은 다음과 같다.

16. (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 할아버지(님), 어디 가세요?
(다) 오빠, 애기 예뻐요?
(라)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어?
(마) 잎이 언제 피었니(느냐)?

정인승(1968), pp.107-108, '-요'가 말끝 마친 뒤에 붙어서 뜻을 돕는 것으로서 '높임'의 뜻 외에 '힘춤' 곧 강조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봄.

16-(가)~(마)에는 차례로 합쇼체, 세요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등이 쓰였다.

명령법은 다음과 같다.

- 17. (가) 선생님, 저기를 보십시오.
- (나) 할아버지(님), 이리 오세요.
- (다) 오빠, 내일은 일찍 가요.
- (라) 인수야, 이 책 읽어.
- (마) 야, 너희들, 인도(人道)로 다니거라.

17-(가)~(마)에도 차례로 합쇼체, 세요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등이 쓰였다. 특히 명령법은 동사에만 있다.

청유법은 다음과 같다.

- 18. (가) 우리반 모두가 재난을 당한 동철이를 위해 성금을 냅시다.
- (나) 너도 가자.

18-(가)에 쓰인 ‘-십시오’는 하오체이지만³⁵⁾ 일반적으로 공적(公的)인 경우에 공중(公衆)의 동급생들에게 쓰일 수 있다. 18-(나)의 ‘-자’는 해체나 해라체에 두루 쓰인다. 이 문체법도 대체로 동사에만 있다.³⁶⁾

2.2.6. 인용법에서 상대경어법의 조정이 일어난다.

- 19. (가) 인수는 “이 문제는 제가 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칠판 앞으로 나아갔다.

35) 줄고(1992 a), p.110, pp.112-113, pp.120-121. 교영근(1987 b), pp. 74-75. 참조.

36) 요새는 형용사에도 청유형 어미가 쓰이고 있다. 가령 전통어법에는 어긋나지만, ‘성실하자’, ‘조용하자’ 등은 흔히 듣고 볼 수 있는 말이다.

(나) 인수는 그 문제는 자기^가 풀겠다고 하면서 철판 앞으로 나아갔다.

20. (가) 영숙이는 “여기가 이렇게 변한 줄은 몰랐어”라고 탄복했다.

(나) 영숙이는 거기^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탄복했다.

19와 20에서 (가)의 평서법 직접 인용의 상대경어법이 (나)의 간접 인용에서는 해라체로 바뀌었다.

21. (가) 숙이는 “인수가 언제 오나요?”라고 물었다.

(나) 숙이는 인수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

22. (가) “우리 모두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에 동참합시다.”라고 학생회 회장은 호소했다.

(나) 우리 모두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에 동참하자고 학생회 회장은 호소했다.

21-(가)의 의문법 직접 인용의 상대경어법이 21-(나)의 간접 인용에서는 그 조정이 일어나 해라체로 바뀌었다.

22-(가)의 청유법 직접인용의 상대 경어법도 22-(나)의 간접 인용에서 그 조정이 일어나 해라체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직접 인용의 여러 화제(話階)의 상대경어법 어미는 전부 해라체로 바뀐다. 곧 상대경어법의 조정이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명령법

37) 직접 인용된 문장 (가)의 주어가 큰 문장의 주어와 일치함으로써 제 1인칭의 소위 비칭어 ‘저’는 재귀대명사 ‘자기’로 바뀐다. 즉 인칭 대명사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용백 외: 1979-137)

38) 19-(가)의 ‘이’와 함께 지시성(指示性)을 띤, 거리관계를 표시하는 단어들도 화자 중심으로 바뀐다. 즉 지시성 단어의 조정이 행하여진다. (이용백외: 1979-137)

만은 다음 23에서처럼 간접 인용에서 '하라'의 형태를 취한다. 또 서술격 조사의 평서법 어미는 다음 24에서처럼 간접 인용에서 '-라'로 바뀐다.■

23. (가) "빨리 일어나세요."라고 노인을 깨우는 사람이 있었다.

(나) 빨리 일어나라고 노인을 깨우는 사람이 있었다.

24. (가) 철수가 "이것은 책입니다."라고 했다.

(나) 철수가 이것은 책이라고 했다.

2.2.7. 문(文)에서 상대정어법이 관여하는 언어 요소는 독립어의 조사, 서술어의 어미 등이다. 이들은 서로 호응을 이룬다.

25. (가)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 아버지(님), 어디 가세요?

(다) 형(님), 이것 봐요.

(라) 혜정아, 이리 와.

(마) 철수야, 공부해라.

25-(가)~(다)에서처럼 손윗사람에게는 대체로 독립어의 호격 조사 곧 '- 이(시)여'가 생략된 체로 서술어 어미의 합쇼체·세요체, 해요체 등과 호응을 이룬다. 다만 문어(文語)에서는 그것이 붙을 수 있다.

그러나 25-(라), (마)에서처럼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는 호격 조사 '-아/-야'가 서술어의 어미의 해체나 해라체와 호응을 이룬다.

2.2.8.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 사회에서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상대정어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밖에 성인(成人) 사회에서 사용하는 상대정어법도 최소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9) 이용백 외 (1979), p.138, 참조.

독립어의 호격 조사 '-이(시)여'는 기도(문)나 문어(文語)로서 시어(詩語)에 사용되지 일상의 구어(口語)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서술어의 선어말 어미에 *'-오-', *'-옵-', *'-시오-' 등이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것들은 화자(話者)의 낮춤이나 겸양의 뜻이 있어서 상대 곧 청자를 더욱 존경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것들도 기도(문)나 편지 등에 주로 쓰이지 일상의 구어(口語)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절대자나 신과 같은 존재인 상대 곧 청자를 대우할 경우에 서술어의 종결 어미에 상대경어법의 하소서체 곧 *'-(읍)소서'가 다음과 같이 쓰인다.

26. (가) 하느님(이시여), 저의 동생을 구해주(읍) 소서.

(나) 아버지, 보시옵소서.

26-(가)는 기도문이고, 26-(나)는 편지문이다. 상대 곧 청자를 대우하기 위해서 두 문의 호격 조사가 생략되었거나 '-이시여'가 쓰여 서술어의 선어말 어미(읍) 및 종결어미 하소서체와 호응을 이룬다.

이 하소서체는 함소체보다 화계(話階)를 높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지간히 나이든 성인들은 상대 곧 청자가 별로 친하지 않은 때나 하대(下待)하기 거북한 아랫사람인 경우에 그를 대우하기 위하여 서술어의 종결 어미에 전통적으로 하오체를 쓴다. 또한 성인들은 친족 관계에서 동일 향렬이라도 연령의 낙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손윗사람 가령 손윗누나가 결혼한 오빠에게 하오체를 쓸 수 있다. 이 밖에 이 문체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을 가진 경우에 쓰인다. 가령 출가한 딸이 부모에게 하오체를 쓰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흔히 있는 일이다.

27. 어머니, 언제 거기 갔다 왔수?

친족 관계에서 사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성들이 격식체로서 하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쓰이는 범위가 비교적 좁다. 이 문체는 서

40) 줄고, 상계서, P.117, pp.236-237. 참조.

법상으로 특히 청유법에서 '-ㅂ시다'가 쓰인다.

하계체는 연령이나 지위의 낙차(落差)가 비교적 크지 않는 손아랫사람에게 쓰거나 성인의 친밀한 동년배 사이에 쓰인다.

가령 스승이 성년이 된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쓴다.

28. 자네, 이 원고 교정 좀 봐 주게.

친족 관계에서도 하계체가 쓰인다. 가령 장모가 사위에게, 손윗동서가 손아랫동서에게 사용한다.

동년배들 사이 평교간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계체는 하오체와 같이 주로 격식체로서 대부분 성인 남성들 사이의 대화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쓰이는 범위가 비교적 좁다.

이 문체는 서법상으로 특히 청유법에서 '-세'가 쓰인다.

하계체는 상대 곧 청자 사이에 연령의 낙차가 하오체보다 크기 때문에 후자와 같은 화계(話階)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 곧 청자를 해라체보다는 높여 대우하는 경우에 쓰인다.

이제까지 설명한 서술어의 종결 어미에 쓰이는 하소서체, 하오체, 하계체 등 외에 청소년(우리)들이 사용하는 합쇼체 및 세요체, 해체, 해라체 등은 역시 성인들도 사용하는 문체들이다.

그런데 해체는 해라체와 같은 화계(話階)로 쓰이기도 하지만 하계체와 같은 화계(話階)로도 쓰인다. 그래서 성인들도 하계체와 해체를 혼용하는 일이 있다.

3. 본 연구에서 남은 문제

국어 교육학이 독자성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간학문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이 분야를 응용언어학이라고 불려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국어교육학의 이론 체계를 세우는 일이 다른 순수학문의 그것보다 쉽

지 않은 까닭이 또한 그러하다. 주변의 여러 학문, 언어학을 비롯하여 심리학, 교육학, 그 밖의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문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국어교육학의 독창적인 이론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이 없이 이 학문, 저 학문을 응용하여 짜맞추려는 식으로 국어교육학을 연구하려는 태도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만큼 국어교육학이 인접학문의 발전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어교육학이란 어떤 학문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국어교육학의 정의(定義)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런 정의(定義)에 입각한 교수이론으로 교수방법이 개발되어야, 피교육자인 청소년들을 위한 경어법의 기술이 단지 언어지식으로만 전락하여 사장되지 않고, 그 교수방법에 따른 말하기 및 쓰기의 연습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국어교육과정에 맞춘 것이 아닌, 실제와 접목된 경어법 기술이 새로이 요구되는 것이다.

언어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 어휘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⁴¹⁾ 가령 한국어 경어법에 대한 어휘 연구는 줄고(1992)에서 청소년들의 그것만 밝혀졌을 뿐이다. 성인(成人)이나 유년기의 각 경어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역시 위와 아래가 연계된 경어법 기술이 새로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직 그 시기로 보아 무리 같지만, 언어 외적인 면의 연구가 국어학계에서도 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큰 진척이 있었으면 한다. 언어의 내적인 면의 연구의 도움으로는 어차피 국어교육학이 발전의 한계를 가지게 마련이다. 언어가 기호 체계로서 국어교육학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그것이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어교육학은 피교육자에게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41) 그 동안 국어교육적 차원에서 어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그것도 주로 문자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착이다.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제시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면 국어문법, 경어법이 피교육자들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복수 외(1968), 문법, 형성출판사.
 강윤호 (1968), 문법, 지림출판사.
 김혜숙 (1986), 「현대 국어의 대우법 체계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고영근(1974 a), "현대국어의 종결 어미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10권1호.
 _____ (1974 b), "현대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권 2호.
 _____ (1976), "현대 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권 1호.
 남기심 (1981), "국어 존대법의 기능", 인문과학 45집, 연세대학교.
 서덕현 (1985), 「현대 한국어의 경어법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_____ (1986),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관한 호칭 사용 실태", 「국어교육」 55·56, 한국 국어 교육 연구회.
 _____ (1992 a),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 (1992 b),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1)", 「국어교육학」, 2집, 국어교육학회.
 성기철 (1970), "국어 대우법 연구", 논문집 4, 충북 대학교.
 이인모 (1968), 새문법, 영문사.
 이은정 (1968), 우리문법, 계몽사.
 이용백외 (1979), 문법, 보진재.
 이용주 (1991), "한국어 대우법과 그 교육(1)", 「선청어문」 19,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양인석 (1980), "한국어 말끝 말씨의 간소화", 『언어와 언어학』 6집, 한국 외국어대 어학 연구소.

이희승 (1968), 새문법, 일조각.

정인승 (1956), 표준 고등 말본, 신구 문화사.

_____ (1968), 표준 문법, 계몽사.

조준학 외 (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서울대 어학연구소 공동계획.

최현배 (1968), 새로운 말본, 정음사.

허 용 (1968), 표현 문법, 신구문화사.

_____ (1979), 문법, 과학사.

홍기문 (1947), 조선 문법 연구, 서울신문사.

문교부 (1985), 고등 문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그 밖의 다수의 문헌